

사라진

마법의 구슬

박현숙 글 | 김유진 그림



글쓴이 박현숙

아이들과 수다 떨기를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으로는 동화 쓰기를 좋아하는 어른입니다.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어 작가가 되었습니다. 제1회 살림 어린이 문학상 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쓴 책으로는 《국경을 넘는 아이들》 《어느 날 가족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세계에 입장하시겠습니까?》 《수상한 아파트》 《수상한 우리 반》 《수상한 학원》 《수상한 친구 집》 《수상한 식당》 《기다려》 《수상한 편의점》 《뽀뽀한 가족》 《위풍당당 왕이 엄마》 《수상한 도서관》 《수상한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그린이 김유진

홍익대학교에서 산업 디자인을 공부하고 테마파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책과 그림이 가장 친한 친구였던 어린 시절을 되새기며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책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틈틈이 어린이들을 만나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쓰고 그린 책으로는 《비단 공장의 비밀》 《소방관 고양이 초이》, 그린 책으로는 《바람숲 도서관》 《고양이네 박물관》 《네가 오는 날》 《3월이 방학인 학교》 《꼬리 감춘 가족》 등이 있습니다.



마법의 구슬

박현숙 글 | 김유진 그림

오늘은 기차를 타고
유럽 여행을 떠나는 날이에요.
재민이는 어젯밤에 너무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겨우 잠이 들고 나서는 기차를 타고
눈이 산처럼 쌓인 별판을 지나는
꿈을 꾸었어요.

“재민아, 어서 씻고 준비해야지.”
엄마 아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잊은 거 없나?’
재민이는 가방에 수첩도 넣고 연필도 넣고
크레파스도 넣었어요.
‘아, 이것도!’
재민이는 ‘멋져 보이게 하는 마법의 구슬’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 구슬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다른 사람 눈에 멋져 보여요.



재민이네 가족은 순천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역으로 갔어요.

“광주에서 고속 기차를 타고 일단 신의주까지 갈 거야.”

아빠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가뿐히 들며 웃었어요.

광주역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우리는 7호차야.”

재민이는 엄마와 아빠를 따라

기차에 탔어요.



“아앗.”

재민이는 어떤 아이와 부딪혀서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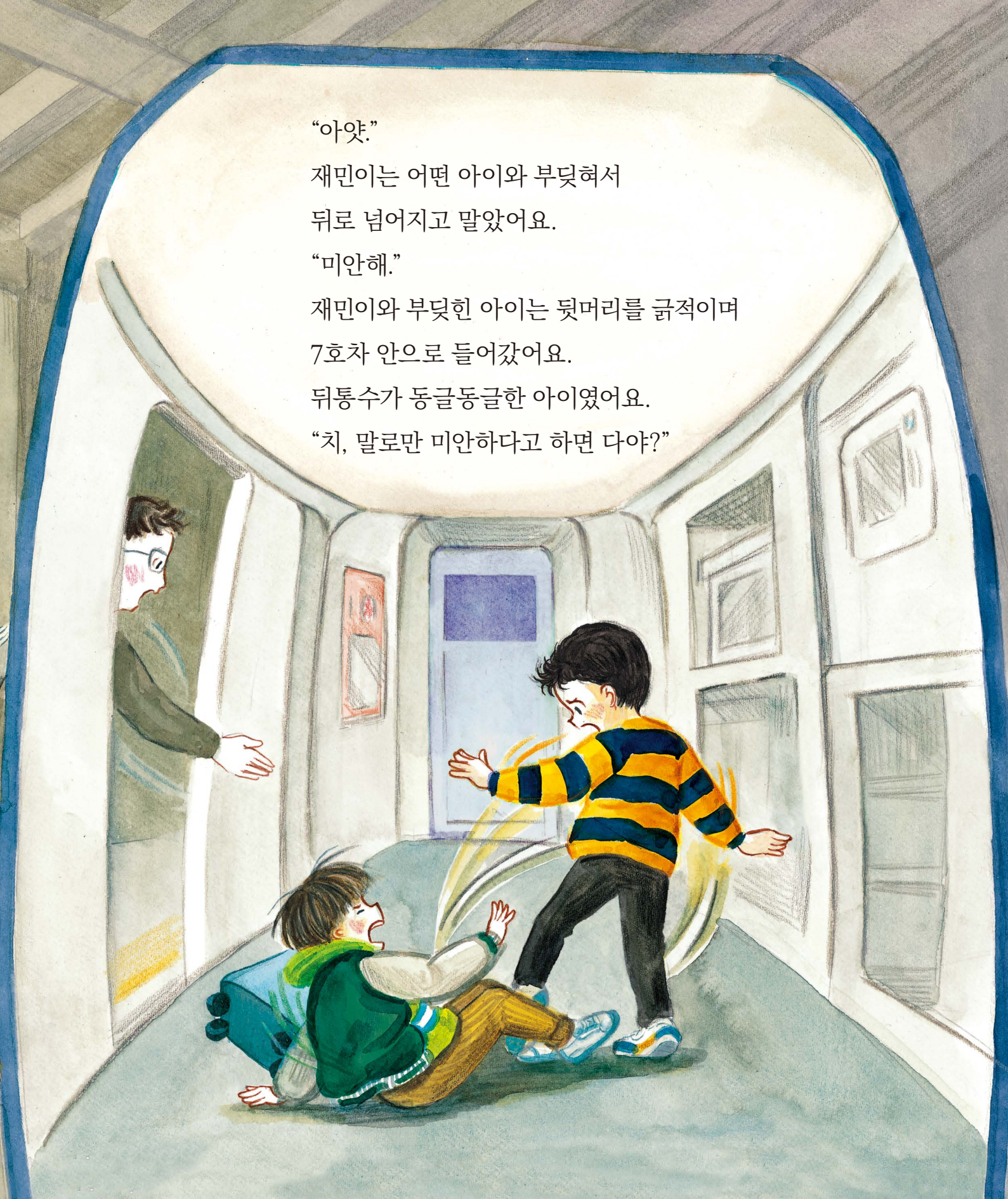
“미안해.”

재민이와 부딪힌 아이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7호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통수가 동글동글한 아이였어요.

“치,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철커덕 철커덕! 기차가 달려요.
강을 건너고 터널도 지나요.



“어, 마법의 구슬이 어디 갔지?”
재민이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마법의 구슬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지 뭐예요.



재민이는 가방도 뒤지고 의자 밑에도 기어들어 가 봤어요.
‘헉, 구슬이 어디로 갔지?
이게 있어야 멋지게 보이는데……!’

‘구슬을 어디에서 잃어버렸지?’
재민이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순천역으로 왔고,
순천역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역으로…….’



아!
재민이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아까 넘어졌을 때 마법의 구슬이 바닥에 떨어졌나 봐. 그렇다면…….’
재민이는 건너편 앞자리에 앉아 있는
뒤통수가 동글동글한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재민이가 넘어졌을 때 저 아이가 힐끗 쳐다봤거든요.



기차가 계속 달려요.
숲과 논밭을 지나고 도시도 지나요.
엄마와 아빠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재민이는 조금도 신나지 않았어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설레던 마음도 사라졌어요.
'저 아이가 가져갔을까?'

재민이는 생각하다 말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안 가져갔을 수도 있어.'
그때 머리를 양쪽으로 묶은 아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우리 같이 놀까?"



“내 이름은 소영이야.”

소영이는 전주에 살고 있대요.

“나는 준호야. 광주로 여행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준호는 평양에 산다고 했어요.

“나는 장수야. 순천에 살아.”

뒤통수가 동글동글한 아이가 말했어요.

‘순천 어디에 사는 걸까?’

재민이는 단 한 번도 장수를 본 적이 없어요.

하긴 순천은 넓으니까요.



“나는 코안이 가려울 때는 이렇게 긁어.”
장수가 새끼손가락을 코안에 넣고 벽벽 긁었어요.
소영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소영이가 웃자 장수도 웃었어요.
‘그게 뭐가 웃겨?
코안에 손가락을 넣고 긁는 건 웃긴 게 아니야,
더러운 거지. 세균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재민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소영이는 장수가 말을 하기만 해도 웃었어요.
그때마다 소영이의 눈은 반달 모양이 되었어요.
소영이는 장수가 마음에 드나 봐요.
‘마법의 구슬 때문에 장수가 멋져 보이냐?’
재민이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기차가 대전역을 지났어요.
 “화장실 다녀올게.”
 장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응.”



소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까지 흔들면서요.
 재민이는 장수를 따라갔어요.
 어서 빨리 마법의 구슬을 찾아야 해요.



한참이 지나도 장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거지?’
 재민이는 화장실 문에 몸을 기대고
 귀를 기울였어요.



“어어어어어어.”
 이를 어찌면 좋아요.
 재민이는 그만 장수를 와락 껴안고 말했어요.
 그 바람에 마법의 구슬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고요.

기차가 서울역을 지났어요.

“나는 냉면을 좋아해.”

소영이가 말했어요.

“나도 냉면 좋아해. 우리 동네는 냉면이 유명하거든?
두부밥도 유명하고. 나중에 순천에 꼭 놀러 와.”

장수는 소영이를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냉면



지짐이



두부밥



핑핑이떡



꼬막무침



짬뽕어국



“냉면은 쫄깃쫄깃하고 국물이 진짜 시원해.”

“와, 진짜? 나도 비빔냉면보다 물냉면이 더 좋은데.”

다 마법의 구슬 때문이라고!



아이들 모두 장수 말에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장수네 집에 꼭 놀러가겠다는 약속도 하고요.

“순천에는 냉면이 유명하지 않거든?”

재민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 아닌데…….”

장수가 큰 눈을 깜빡거렸어요.

“인기 얻으려고 거짓말하는 거 맞잖아.

너는 진짜 인기 있는 게 아니야. 다 마법의 구슬 때문이라고!”

재민이는 소리친 뒤 엄마 아빠 옆으로 돌아왔어요.

기차가 개성역을 지났어요.
재민이는 창밖만 내다봤어요.
하지만 마음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자꾸만 달려갔어요.





기차가 사리원역을 지났어요.

“재민아. 이것 좀 먹을래?”

엄마가 사과를 내밀었어요.

“싫어요. 잠이나 잘래요.”

재민이는 점퍼를 머리끝까지 뒤집어썼어요.

그때였어요.

또르르르르.

점퍼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어, 마법의 구슬이잖아? 이게 왜 점퍼 주머니에 있지?”

바지 주머니가 아니라 점퍼 주머니에 넣었나 봐.”



재민이는 장수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장수가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 주고 있었어요.

“재민아. 너도 먹어. 우리 엄마가 집에서 직접 만든 두부과자야.”

장수는 재민이에게 과자를 내밀며 웃었어요.

“나는 과자 안 좋아해.”

재민이는 고소한 두부과자 냄새에 침이 고였지만

미안해서 덤석 받을 수가 없었어요.

“떡어 보면 반할 거야.”

장수가 또 웃었어요.

장수는 화가 나지도 않는 걸까요?

재민이는 장수에게 진심으로 미안했어요.

하지만 사과할 용기가 없었어요.



얼마 후 방송이 나왔어요.

“잠시 후 우리 열차는 순천역,
순천역에 도착합니다.”

“순천이라고요? 도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재민이는 깜짝 놀라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아니야. 평안도 순천역에
도착한다는 방송이야.

우리 동네는 전라도 순천이고.”

그때였어요. 장수네 가족이
짐을 들고 일어났어요.

‘아, 장수가 사는 동네와
우리 동네 이름이 같았구나!’



“미안해. 나는 순천이 평안도에도 있는 줄 몰랐어. 나중에 놀러 갈게.”

“그래, 꼭 놀러 와.”

장수가 활짝 웃었어요.

재민이는 장수 손에 ‘멋져 보이는 마법의 구슬’을 쥐여 주었어요.

“와, 이거 요즘 인기 최고인 마법의 구슬이잖아!”

“맞아. 이 구슬을 가지고 있으면 전라도 순천과 평안도 순천 전체에서 제일 멋진 아이가 될 거야.”

재민이와 장수는 서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기차가 달려요.
유럽으로 달려가요.
바람을 가르고 햇살을 가르며
철커덕! 철커덕!



1 다음 중 알맞은 동화 내용을 따라 길을 찾아가 보세요.

출발!

재민이네 가족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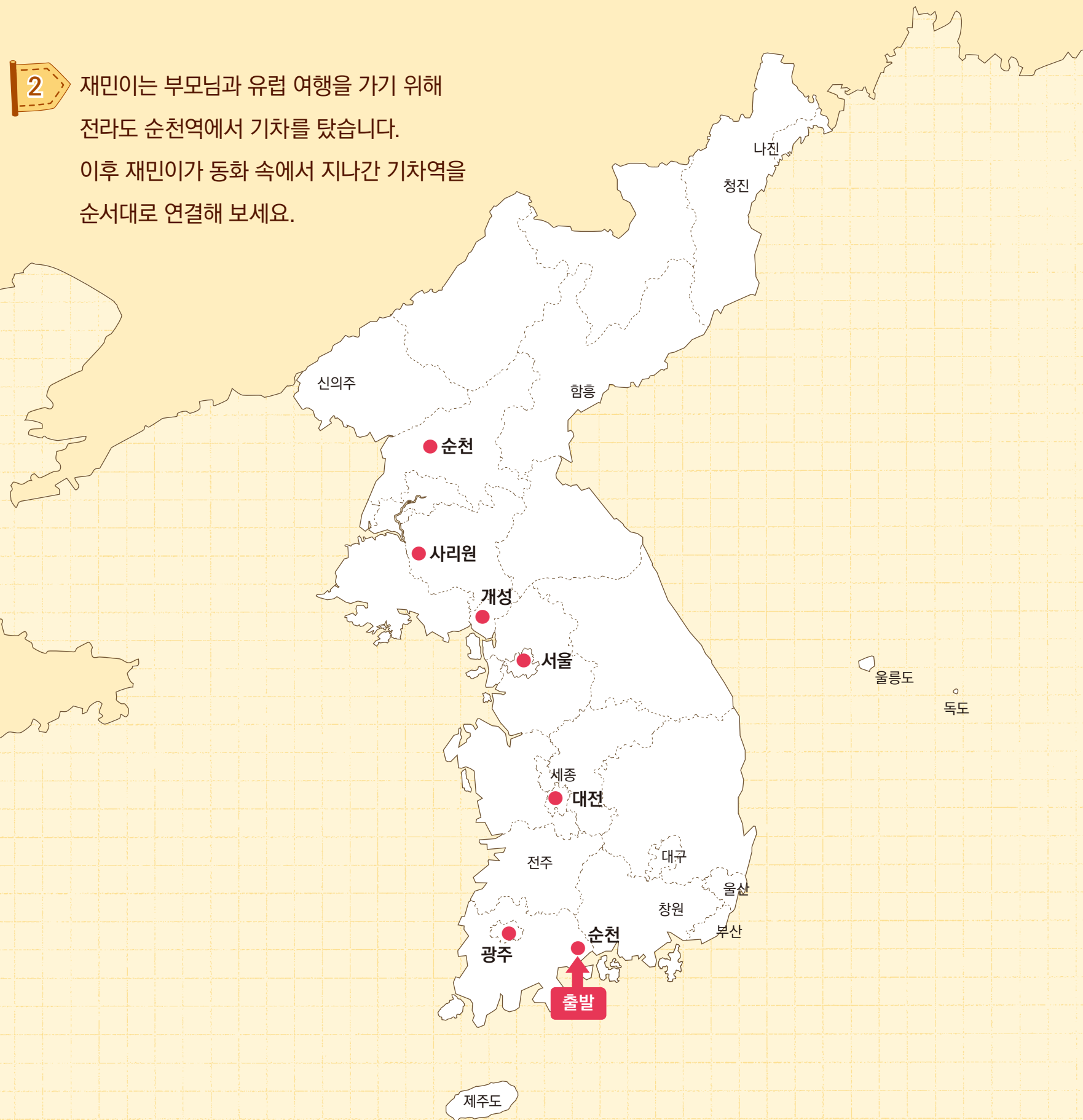
기차 안으로 들어가던 재민이는 장수와 부딪혀 넘어진다.

재민이는 장수가 마법의 구슬을 가져갔을 거라고 의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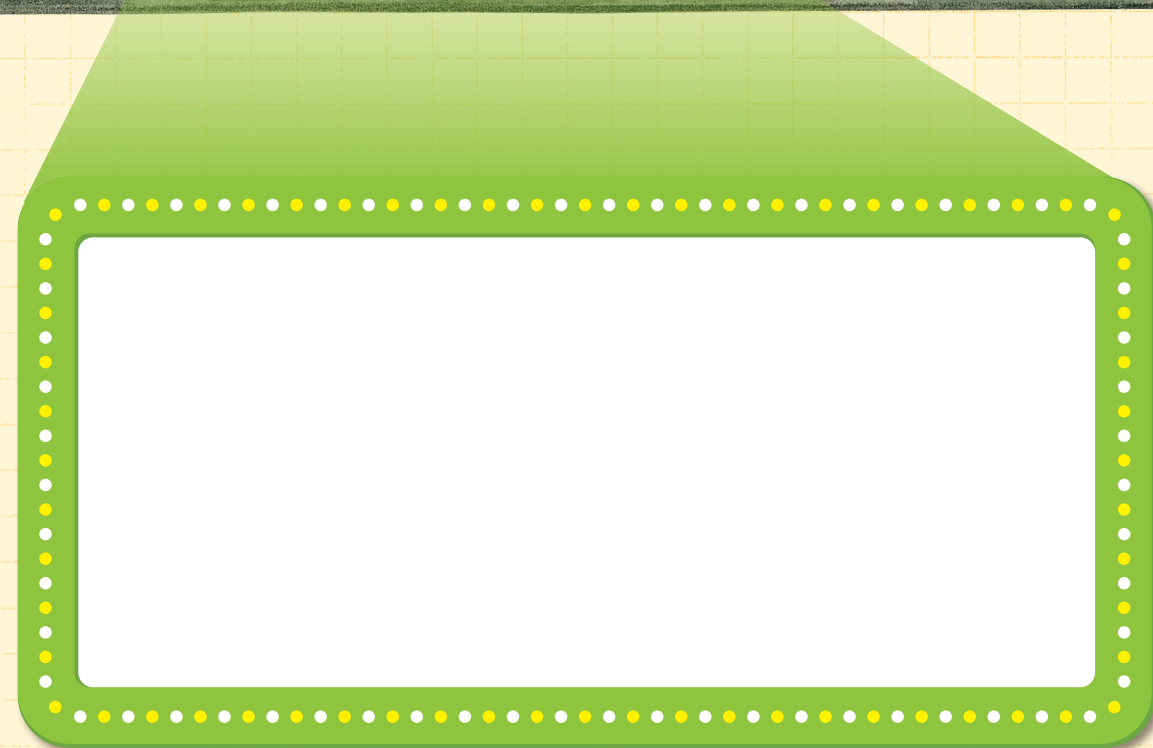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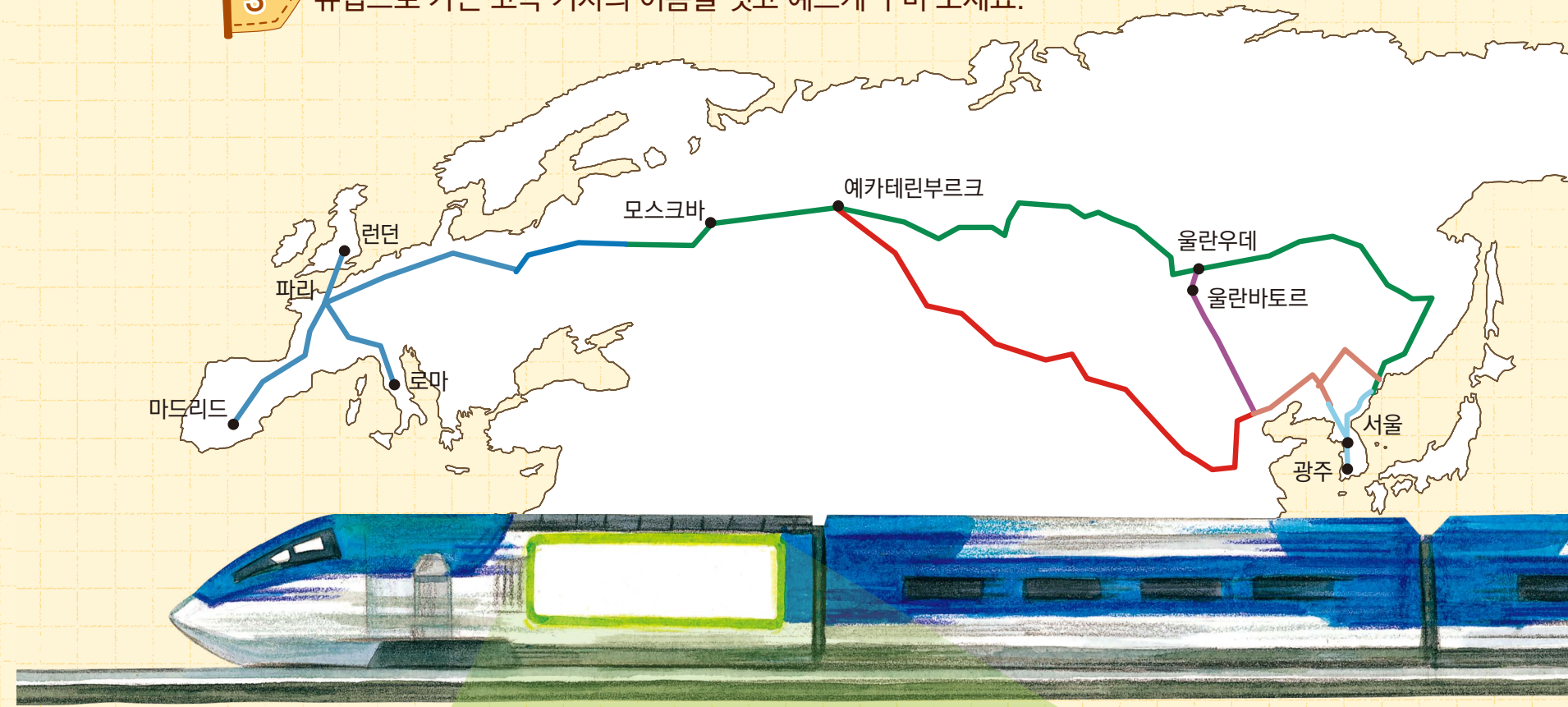
장수의 집은 전라도 순천, 재민이의 집은 평안도 순천에 있다.

도착!

2 재민이는 부모님과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 전라도 순천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이후 재민이가 동화 속에서 지나간 기차역을 순서대로 연결해 보세요.



3 유럽으로 가는 고속 기차의 이름을 짓고 예쁘게 꾸며 보세요.



4 재민이와 장수가 사는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을 각각 2개씩 연결해 보세요.

5 여러분이 평안도 순천에 있는 장수네 집에 놀러 간 모습을 상상해 그려 보세요.



냉면



꼬막 무침



두부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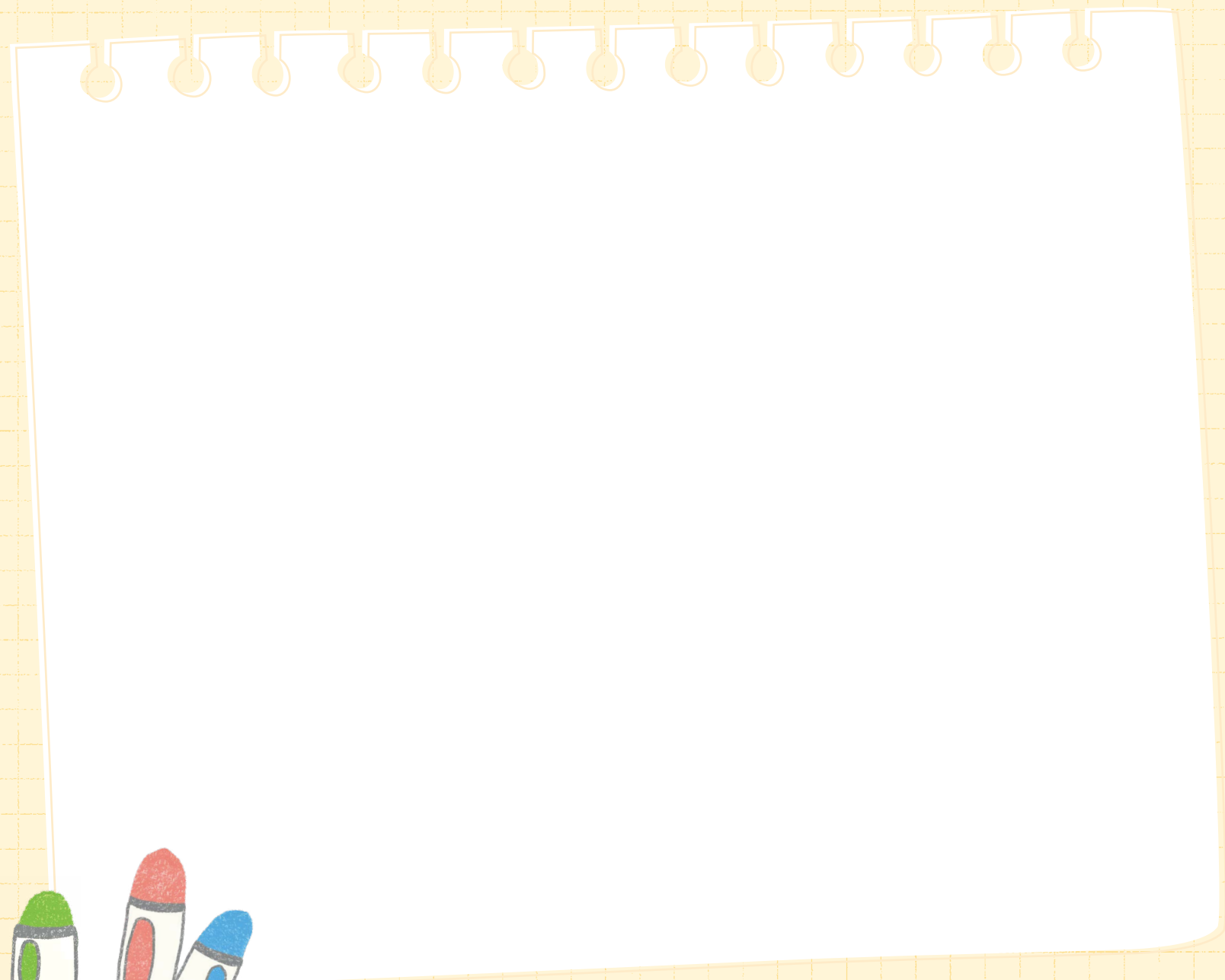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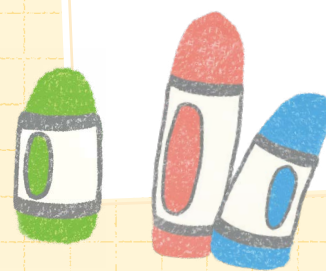
장동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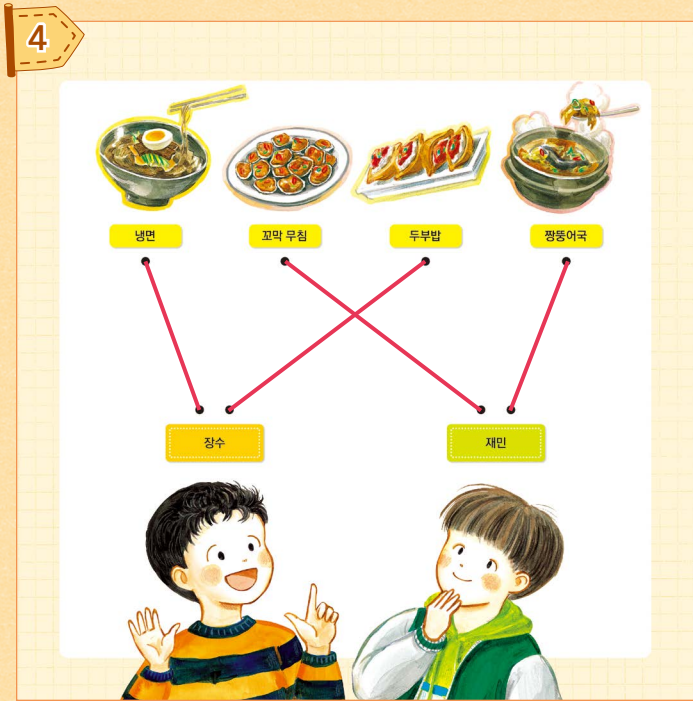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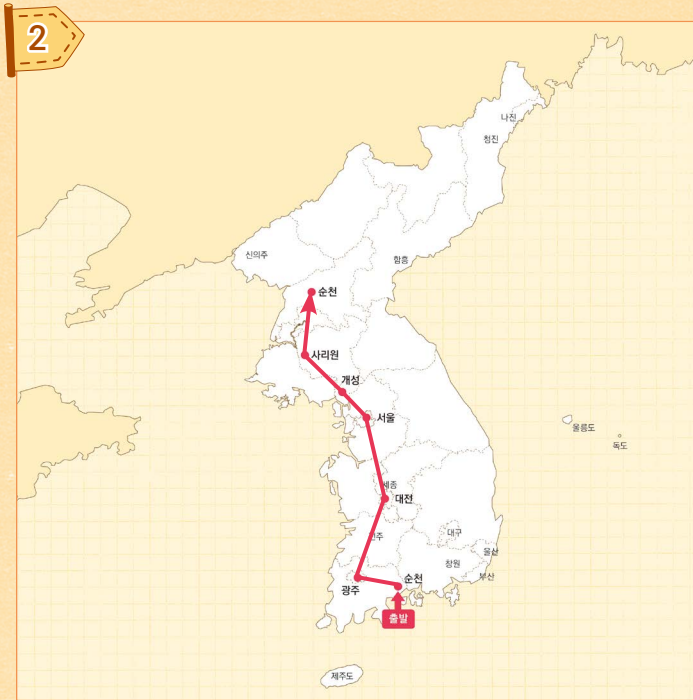
• •

장수

• •

재민





QR 코드를 찍으면
《이해리와 리해리》의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찍으면
《캠핑가는 날》의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찍으면
《캠핑가는 날》의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습니다.



통일 그림동화 03
사라진 마법의 구슬

글 박현숙 그림 김유진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담당 이효원)
주소 01018 강북구 4, 19로 123(수유동) 전화 02-901-7167 홈페이지 www.uniedu.go.kr
편집·디자인·제작 주니어김영사 031-955-3100
발행일 2020. 12.
ISBN 979-11-97224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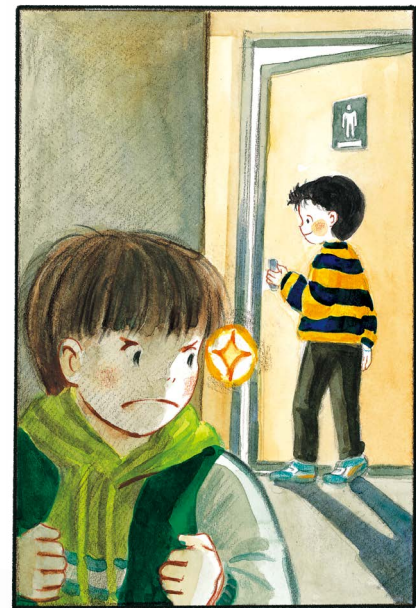
이 책은 친환경적으로 개발·관리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부착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국제산림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친환경 공기를 잉크로 인쇄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표시사항
제품명 도서 제조년월일 2020년 12월 3일 제조사명 김영사 주소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97
전화번호 031-955-3100 제조국명 대한민국 주의 책 모서리에 찍히거나 책장에 베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오늘은 재민이네 가족이 기차를 타고
 유럽 여행을 떠나는 날!
 재민이는 기차 안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마법의 구슬'이 없어졌지 뭐예요.

재민이의 구슬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값 12,000원
 77340
 9 791197 224003
 ISBN 979-11-972240-0-3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합니다.